

멜후리 그물집에는 계장이 으뜸이고 공원이엔 허는 동 소임이 있주.

이 옛말은 멜어장에 풍어 들게 해주는 도채비 이야기라. 옛날사 멜후리 어장이 있는 동네에선
다 도채빌 위해신걸.

멜후리 그물집이 모이면 멜 잘 잡게 해줍센 도채비 모셔당 제 지내는 일을 공원이 허주.

공원 한 사람은 젊고 또 한 사람은 나이든 어른인디. 이제는 제물을 짚어지고 도채빌 모시레
가는 거라. 도채비는 저 한동 지경이 많거든. 나이든 이가 젊은 공원한티, 너랑 이디 아뭇 소리
말양 앙양이시민 내가 가서 도채빌 모셔오마고 하고는 혼자 제물을 짚어지고 가거든.

저만치 간 제물을 부려놓고,

“영감, 계십니까?” 부르니,

“어. 거 오래간만일세. 어떻허연 왔는고?”

허는 대답소리가 나.

나이 많은 이허고 도채비가 서로 인사를 나눈다 말이여.

“이거, 약소헌 제찬이주마는 조금 응감하시라고 짚어전 왔수다.”

“허, 나 해주는 일 없이, 이렇게 받양 뭘로 보답을 허쿠?”

도채비가 막 고마왕 해여가난, 나이든 공원은 이젠.

“뭘 걱정해염수꽈? 영감님은 하늘과 땅을 다 통하는 어른 아니꽈? 올해 멜 어장이나 부디 잘
되게 해줍서.”

영 공손허게 부탁을 헌단 말이지.

“아, 그것쯤이사 내 못허겠는가.”

그렇게 해두고 그 해에 멜어장에 철이 되니, 마파람이 탕, 한 주제 불어자천.

보니 멜이 돈뿍 쌓였단 말이여. 그물을 칠 수가 있어야지. 마침 썰물이 나서 와! 멜이 바다물
과 같이 밀려나갈 참인디, 불덩어리가 흙 날아와 가지고 탐방탐방 무자맥질을 허멍 멜이 밖으로
못나가게 막아 주는거라.

날이 밝으니 사람들이 모여들언 멜고리로 막 퍼내었지.

멜풍년이 들기를 세상나서 처음이라곤 할 정도로 기막힌 풍년이었주게.

다 그 도채비가 도운 덕분이었주.

경했는디 그 뒷해 공원은 도채비 모실 줄을 몰랐던 모양인가. 치성을 잘 못하고 제를 지냈단 말이여.

이제 멜어장이 열리난 당선들이 바당에 나가서 개코를 부치고 멜떼가 들때까지 한 숨 잤던 말이여.

아, 한 숨 자고 일어난 보니 제주섬이 없어져 부렀어. 이게 무슨 조화라. 그때 했던하는 재미 있는 말이 있주.

“우리가 우리가 아닌가? 우리가 우린가?”

막 겁이나서 종선을 타고 그냥 마을로 돌아왔지. 그물이고 배고 다 저 먼 바다에 던져두고 몸만 겨우 살아온거주.

공원이 도채비 좋아하는 제물을 잘 안차린 탓이엔, 경해서 요렇게 멜어장을 놓쳤던 했다해여.

경허난 도채비 위하는 음식으로, 대축범벅, 대축 오메기떡이 제일이라.

음식을 또 잘 마련했다고 도채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라고들 해여.

다 팔자에 타고나야 도채비를 어르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.

평대리편집위원회, 『평대리-비자림 군락의 촌』, 제주도 구좌읍 평대리, 1990, pp.266-267.